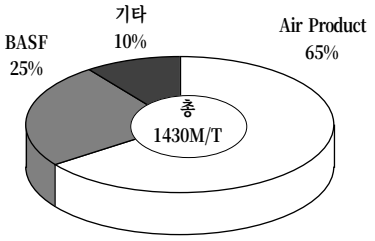
에틸아민, 1500톤 놓고 3파전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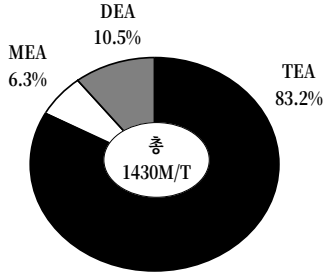
Air Product · BASF에 Huls 저가공세 … 수급 · 가격 안정세

국내생산 없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틸아민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에틸아민은 94년말 외국생산기업들이 물량부족에 따라 공급을 제한, 수급에 극심한 차질을 빚었으나 95년 3/4분기부터 가격 안정 및 원활한 물량공급으로 이중고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 제약경기가 좋아지는 96년 6월을 고비로 또한차례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메이저 기업들의 통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에틸아민 시장점유현황(1995)



에틸아민 수요구성비(1995)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에틸아민 수요는 94년 1300톤에서 95년 1430톤으로 10.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96년에는 95년대비 11.9% 증가한 1600톤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매년 10%이상 신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95년 국내 시장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 대폭적인 시장변화가 이루어졌다.
Air Product는 94년 715톤으로 점유율이 55% 그쳤으나 95년에는 930톤으로 65%까지 끌어올려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r Product는 94년까지 두산상사, 조일상사, 미원통상, 우림통상, 길풍무역 등 다수의 수입상들과 거래했으나 95년에는 두산상사, 조일상사에 각각 70%, 30%를 공급하고 나머지 수입상들과는 거래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ASF는 94년 325톤, 25%에서 95년에도 358톤, 25%를 차지했으며 Daicel, ICI 등 기타 메이커들은 260톤, 20%에서 142톤, 10%대로 점유율이 대폭 하락하는 부진을 보였다.
그러나 엔화 하락에 따른 Daicel의 저가 공격과 Huls가 인디아 현지공장을 통해 200달러 이하로 공급해 가격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국내시장이 또 한차례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되고 있다.
95년 에틸아민 용도별 수급현황을 보면, TEA는 의약용이 94년 600톤에서 95년에는 140톤 늘어난 740톤, 발전용 140톤, 도료용 100톤, 페놀수지용 80톤, 염료용 60톤, 농약용 20톤, 기타 50톤 등 총 1190톤으로 83.2%를 차지해 94년 80.7%보다 2.5%P상승했다.
DEA는 의약용 95톤, 가황촉진제 35톤, 도료 20톤 등 총 150톤으로 94년 10%보다 약간 증가한 10.5%를 기록했다.
MEA는 도료, 부직포용 수요가 모두 감소함에 따라 94년 120톤, 9.2%에 못미친 90톤, 6.3% 점유율에 그쳤다.
특히 TEA는 항생제 등 국내 제약기업들의 의약품 수출증가와 발전용 수요가 환경규제에 따라 대폭 증가해 96년 수요가 180톤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10%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한편, 에틸아민 가격은 TEA기준 94년말 1950달러에서 95년초 2200달러로 인상됐으나, 실거래가격은 2150달러로 10.2% 올랐고, 96년초 현재는 다소 하락한 19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6/3/11>